

소리는 귀로만 들을수 있지 눈으로 볼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코로 냄새를 맡아 볼수도 없다. 모든 문제를 法이라는 눈으로 보고 法이라는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질병의 치유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

새해 바뀌어지는 브로일러 가공처리, 유통상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원 교육

가. 자체검사원은 교육받은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각 시·도지사는 관내의 자체검사원에 대하여 분야별로 교육이수 사항을 파악하여 '85년도 재교육 대상자를 '85. 1. 15까지 대한수의사회에 통보하고,

나. 대한수의사회에서는 '85년도 자체검사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85. 2. 15까지 농수산부에 보고한다.

- '85년 교육예정인원 : 120명 (40명 × 3회)

2. 축산물작업장 시설기준 강화

가. 주요내용

시설별 작업장명	부지면적	냉동시설	작업장면적
특급 도축장	3,300㎡ 이상 (1,000평)	82.5㎡ 이상	
특급 도계장	2,000㎡ 이상 (606평)	66㎡ 이상	
수육 가공장			330㎡ 이상

나. 허가증 재교부(경과조치 운용)

○ 특급도축장, 1급도축장 : 규칙 시행일로부터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금년 3월16일부터는 도계품을 검사원이 지육에 검인후 제조업체의 자체검사 필증을 부착 또는 포장지에 인쇄하여 포장후 출고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까지 위탁도계 위주에서 이제는 도계장이 상표를 판매하게 됨으로써 유통의 주체로서 서서히 부상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닭고기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상인들의 모든 기능을 도계장들이 흡수할수 있으리라고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수집, 운반, 저장, 금융, 수급, 각종 장비, 품질의 규격별 분류 공급 등 제반 기능을 물려받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76년부터 시도된 위생도계유통이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의 핵심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환자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시진과, 귀로 듣는 청진, 두드리고 만져보는 촉진 등 질병에 따라 진단 방법도 달라야 될 것이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과학적인 종합진단이 필요하다.

터 6월이내 시설을 갖춘후 허가증 재교부 신청

3. 도계방법 및 유통체제 개선

가. 도계방법 개선에 따라 각급 도계장에서는 불가식 부위인 머리, 발, 모이주머니, 콩팥, 허파, 식도, 기도, 내장 등을 완전 제거하여 출고토록 하여야 하며,

나. 특급도계장의 신설에 따라 앞으로 도계육의 타시도 반출은 특급도계장에 한하여 냉장 출고토록 할 예정이며 도계품의 포장 출고율을 의무화할 방침임.

○도계품의 포장 출고 의무화

-시기: 85. 3. 16

-방법: 지육에 점인후 제조업체의 자체검사 필증을 부착 또는 포장지에 인쇄하여 포장후 출고

○도계품의 타시도 반출은 특급도계장만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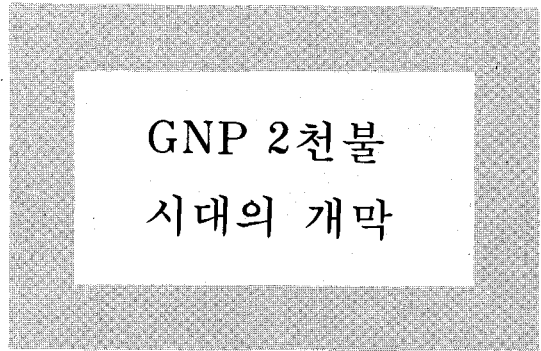
-시기: 85. 5. 16

-방법: 자체검사원이 발행한 반출 통보서에 의거 냉장 반출



4. 기타

○동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 지시사항에 대한 행정 예고를 철저히 이행하여 신규 또는 개정시행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



83년도 우리나라 1인당 GNP가 1,884 달러 이었고 84년은 2,000불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소득 2천불 시대의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양계가족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새해에는 양계산업도 선진국형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2천불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나고 해버릴 수도 있지만 2천불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일본은 71년, 대만은 80년에 이미 2천불 시대를 경험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재볼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수 있는데, 이때부터 어느정도 잘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소비패턴이 급변한다고 한다.

과거 국민소득 105불이었던 65년에서 535불이던 74년과를 비교하면 닭고기는 3.7배, 계란은 3.2배의 소비량이 9년간에 폭증하였다. 이제 제2의 도약기인 2천불시대에는 소비의 증가현상 외에도 소비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고급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의 예에서도 국민소득 2천불 수준에서 소비억제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단위: \$)

년 도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태 국	필리핀	서 독
'70	248	4,795	1,957	386	180	187	3,056
'75	591	7,159	4,466	956	347	369	6,790
'76	800	7,912	5,003	1,121	378	404	7,282
'77	1,028	8,761	6,091	1,287	411	456	8,408
'78	1,406	9,757	8,531	1,550	516	514	10,455
'79	1,662	10,726	8,621	1,866	600	643	12,416
'80	1,605	11,535	8,870	2,101	696	729	13,262
'81	1,735	12,730	9,661	2,573	748	781	11,069
'82	1,800						10,697
'83	1,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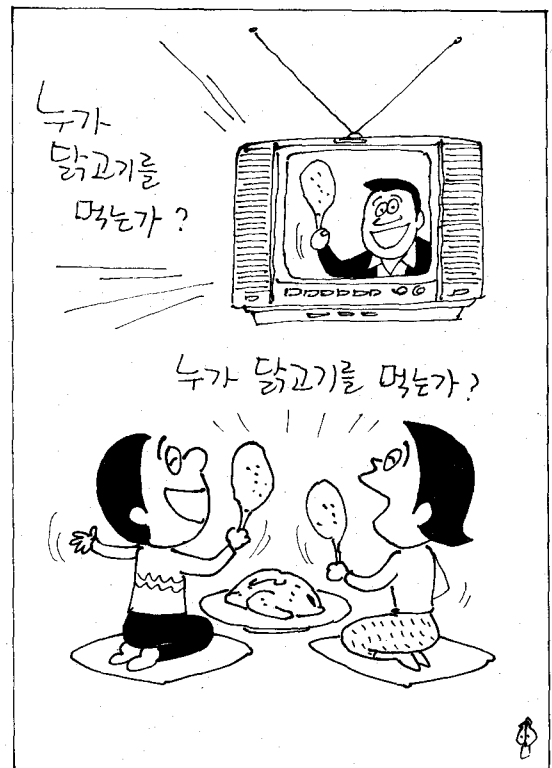
자료: 주요국의 GNP 지표(BOK)

특히 우리는 저축률이 낮고 소비성향이 높아 양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홍보와 품질 고급화 및 원가절감) 서는 양제산업이 현재의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빠른 시일내에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미 전가구의 65.4%가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어 닭고기나 계란의 유통도 이와 연결이 가능하며, 전체가구의 51%가 칼라 TV를 보유하고 있어 소비홍보도 칼라화하여 호화롭고 다채롭게 구성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소비구조가 신흥부유층의 과시하기 위한 소비가 일반계층에 급속히 파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등 외국 유명상표와 이들 계층간을 연결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제는 계산물하면 값싸고 혼한 서민의 식품이라는 인상을 빨리 씻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위생적이고 건강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사재기 심리에 맞도록 가공식품도 개발되어야 하며 외제품 선호 심리에 맞도록 KFC 등 외국상품 사용도 어느시기까지는 필요하다 하겠다. 주물럭이나 갈비소비 중심에서 닭고기의 요리개발로 로스트 치킨 등으로의 대체도 가능할 것이다. 유행 또는 바람으로 대변되는 소비풍조

에 맞도록 자라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후라이드 치킨을 먹어야 어깨를 펼수 있도록 하는 과잉



년도별 양계산물 소비량

(단위: 총 량: M/T)
1인당: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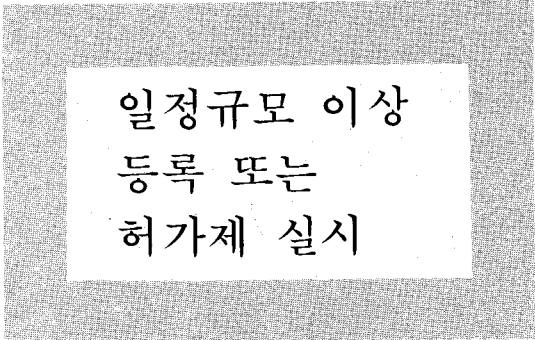
구분 년	1인당 ¹⁾ 국민소득	육류 총량		계 육		계 란	
		총량	1인당	총량	1인당	총량	1인당
1961	83	91,879	3,566	18,533	719	44,994	1,760
1962	87	70,596	2,661	15,730	593	46,151	1,760
1963	100	96,451	3,538	20,254	743	53,675	1,980
1964	103	113,270	4,048	18,836	673	51,868	1,870
1965	105	97,600	3,401	14,458	504	47,068	1,650
1966	125	143,943	4,936	18,700	641	71,427	2,475
1967	142	128,067	4,250	23,960	795	74,217	2,475
1968	169	131,265	4,257	33,696	1,093	82,729	2,695
1969	210	151,464	4,802	42,251	1,339	133,676	4,290
1970	248	165,063	5,251	45,177	1,437	135,084	4,235
1971	285	170,861	5,181	49,997	1,520	139,480	4,290
1972	316	184,725	5,513	54,266	1,620	153,450	4,620
1973	396	186,846	5,479	51,801	1,519	137,527	4,070
1974	535	200,128	5,769	53,269	1,535	151,525	4,400
1975	591	224,734	6,370	55,594	1,576	159,287	4,565
1976	800	245,465	6,847	60,886	1,698	167,707	4,675
1977	1,028	295,987	8,129	73,052	2,006	195,339	5,390
1978	1,406	374,904	10,141	82,189	2,223	205,854	5,555
1979	1,662	428,857	11,426	89,723	2,390	232,725	6,215
1980	1,481	432,682	11,349	90,866	2,383	249,865	6,545
1981	1,735	393,679	10,167	90,646	2,341	243,705	6,270
1982	1,800	443,219	11,269	99,183	2,522	247,775	6,325
1983	1,880 ²⁾	530,280	13,273	119,871	3,003	271,480	6,795
1984 ²⁾	...	580,156	14,297	127,027	3,130	279,888	6,898

자료: 농수산부 축산국(1984년은 추정)

홍보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나이키나 프로스펙스를 신어야 되는 것처럼)

누가 닭고기나 계란을 먹는가? 하는 광고 카피를 머리에 심어주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나 우상이 되어있는 가수가 닭다리를 물고 있다든가 계란을 먹고 있는 화면이 TV에 비치면 소비는 급증할 것이다.

문제는 누가 닭고기를 먹느냐가 아니고 누가 이러한 광고를 할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아뭏든 새해에는 양계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를 기원한다.



지난해 8월 2일 축산법 개정공포에 따라 금년 2월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은 등록 또는 허가

를 받아야 축산업을 계속할수 있게 된다.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부업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가축개량 축진을 목적으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축산업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생산 출하 등 수급조절 명령이 가능해져 정부가 이를 운영하기에 따라 좋은 성과를 거두거나 또는 많은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닭 사육 규모별 수수

규 모	호 수	수 수
10,000~29,999	848	12,782,000
30,000~49,999	98	3,565,000
50,000이상	53	7,559,000
합 계	999	23,906,000
전체에 대한 비율	2.2%	60.2%

양계의 경우 3만수 이상은 151농가로 (84.9월 현재) 이들이 보유한 수수도 11,124,000수로 우리나라 전체 사육수수의 23.1% 밖에 되지 않으므로 23%에 대하여 생산조절 명령을 하여도 수급에 영향을 미칠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부화장의 허가제가 수급 조절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양계에 관한한 거리가 멀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또 등록이나 허가대상을 가격안정(생산조절)에 목표를 두고 10,000수 또는 그 이하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능력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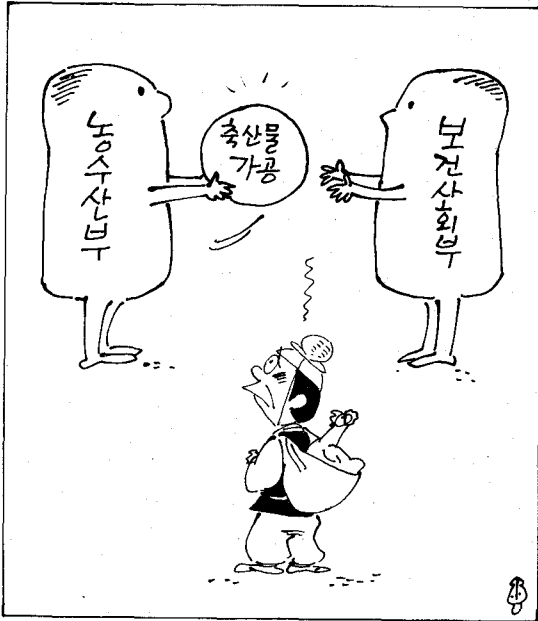
행정력, 자금, 시간, 정력의 낭비만을 초래하는 무익한 제도가 되지 않기만을 바란다.

축산물 가공은 보건사회부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 통과됨으로써 금년 7월부터는 유가공 및 육가공장과 동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업무가 농수산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전된다.

같은 대한민국 정부내에서 소관부처가 어디로 옮기든 무슨 상관이나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다. 이제까지 농수산부는 생산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괄해서 다루어왔기 때문에 생산자의 형편이 충분히 반영되어 왔고 많은 대화통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 개선해 왔다. 비록 그 개선속도가 만족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할 경우 그 질(質)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생산분야의 입장이나 우리의 현실이 도외시 된채로 86, 88 등 국제행사라는 명분과 시간에 쫓겨 현행 미국 등 선진국의 축산물 검사제도 적용을 요구할 경우에 크게 당황하



게 될것은 자명하다. 이는 우리가 지난해 미국 농무성 도계검사관인 어형선 박사를 초청 해서 우리나라 가금처리현황을 둘러본 때에도 분명히 나타난 바 있다.

문제는 생산에서부터 연관되는 사료, 동물약품, 부화, 가공처리, 유통과정 등 모든 분야에 막대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투자없이 좋은 결과만이 강요될 때 가장 큰 피해는 생산자에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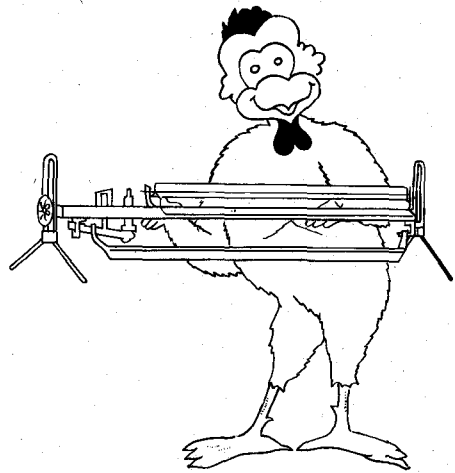
우리는 위생적인 면에서도 계산물의 품질을 하루속히 선진국 수준에까지 높이지 않을수 없는 소비자들로부터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 분야의 수익이 적기 때문에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항상 안타까워 해왔다.

이제 7월부터는 자의반 타의반으로라도 변화가 예상된다.



막히지 않는 자동급수기

1. 밸브 구멍이 막히지 않으며 혹 막히더라도 간단히 분해 조립되어 청소가 편리합니다.
2. 급수기의 생명인 밸브를 신주 주물로 만들어 위생적이며 반영구적입니다.
3. 특히 다리고정 부분을 보강하였으며 부식 방지 셀로판 코팅을 하였습니다.
4. 초생추에서 성계에 이르기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축산기구전문 제작 업체



일일 축산

농협온라인구좌 136 -02-004850 호계동지점 오범석

안양시 호계동 986-9 ☎ 51-2690 (야간) 52-1591

일일축산

